

# 대학 박물관의 활동현황과 방향

鄭 澄 元\*

## I. 머 리 말

제가 부산대학교 박물관장 보직을 맡은 지가 10월말로 꼭 3년이 됩니다. 그전에도 근 20여년간 박물관 일에 관여해왔습니다만 제가 도울 수 있는 특정분야에 한정되어 왔기 때문에, 실제 박물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들은 느껴볼 계기가 없었던게 사실입니다.

막상 제가 박물관 일을 맡아 운영해 보니 그때서야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충분치 못한 예산에 할 일은 너무 많고, 학예실의 인원은 태부족이어서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들이 주변에 늘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생각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학 박물관의 現況과 問題點, 機能과 役割, 發展方向 등에 대해서는 이미 선배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와 논의가 많이 되어 왔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수차례 걸쳐 제시되어 왔습니다.<sup>1)</sup>

그러나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와 같은 박물관학의 범주에 포함되는 그런 차원높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박물관과 협회 일에 관여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 점들을 중심으로 제 의견 및 몇 가지를 말씀드려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학박물관의 기능으로는 수집, 보존, 연구, 전시, 교육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박물관의 기본적인 기능과 동일하며<sup>2)</sup>, 이들 기능이 서로 유기적으로 조화있게 이루어져야 제대로 그 효과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학박물관의 기능이란 대학

\* 釜山大 博物館長

- 1) 권계순, 「박물관 학예원에 대하여」 『古文化』 17, 1979.  
손보기, 「대학박물관과 박물관협회, 어제와 오늘」 『古文化』 17, 1979.  
秦弘燮, 「韓國大學博物館의 問題와 展望」 『古文化』 21, 1992.  
安承周, 「韓國大學博物館의 現況과 問題點」 『古文化』 21, 1982.  
尹世英, 「大學博物館의 機能과 役割」 『古文化』 21, 1982.  
安承周, 「大學博物館의 現況」 『古文化』 28·29, 1986.  
許善道, 「大學博物館의 教育的 機能과 使命」 『古文化』 28·29, 1986.  
李隆助, 「大學博物館의 學術的 機能과 使命」 『古文化』 28·29, 1986.  
鄭永和, 「大學博物館의 社會·文化的 機能과 使命」 『古文化』 28·29, 1986.  
柳元迪, 「大學博物館, 法的 根據마련이 시급하다」 『古文化』 40·41, 1992.
- 2) 이난영, 『박물관학 입문』, 삼화출판사, 1993.  
송춘영, 「역사수업에 있어서의 박물관 교육의 방안」, 『교문화』 46, 1995.

사회의 모든 구성원과 공익을 위해 사회교육과 문화행사를 통해 봉사과 기여를 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sup>3)</sup>

이와 같은 기능을 효율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전시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고, 유물을 보존관리할 수 있는 좋은 시설이 갖추어져야 하며 연구활동과 교육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대학박물관의 현실이 어떠한지는 금년 본 경희대 정진봉 선생에 의해 이미 자세하게 분석된 바 있습니다만<sup>4)</sup> 그 조건이 열악하기 이룰데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총박물관중 대학박물관이 절반 가까이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아직 구체적인 통계는 없지만 우리나라 매장문화재 발굴의 60%이상을 대학박물관이 담당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sup>5)</sup>

열악한 시설에, 부족한 연구인력으로 이런 엄청난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은 대학박물관이 우리나라 전통문화 연구·보존에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가 우리 문화유산을 보존, 관리, 연구하는 체제가 제 궤도를 잡아가지 못하고 있는 한국적인 현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대학박물관들은 이런 과도기적 활동을 점차 청산하고 박물관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는 쪽으로 활동 및 운영방향을 잡아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활동적이지 못해 다른 지방의 박물관이나 다른 대학의 박물관들을 볼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이야기가 전반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 주변에서 보고 느낀 것을 중심으로 전개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지엽적이고, 단편적인 문제만을 언급하는 결과가 되고 말 것 같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II. 대학박물관의 교육활동 실태

제가 잘못 전해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최근 모대학 총장 한분이 박물관이 필요없는 기관,

3) 鄭鎮鳳, 「대학박물관의 현황과 전망」 『古文化』 46, 韓國大學博物館協會, 1995.

鄭永和, 위의 論文.

4) 鄭鎮鳳, 위의 論文.

5) 文化財管理局紀念物課에 확인해 본 결과 대학 박물관의 발굴 담당 비율은 92년도 86건중 49건(57%), 93년도 95건중 57건(60%), 94년도 102건중 68건(66.7%), 95년 9월말까지 105건중 72건(68%)으로 갈수록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91년 이전에도 대학 박물관의 발굴 비율은 이와 비슷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文化財研究所, 『全國文化遺蹟發掘調查年報』(增補版 I), 1990.

심지어 낭비적인 부속기관인 것처럼 말씀하셨다고 듣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되어 전해진 말이라고 믿고 싶습니다만, 이는 대학을 이끌어가는 사람 중에는 박물관에 대한 인식이 이 정도의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말해 주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먼저 대학박물관의 전시실 운영, 교육활동, 연구활동 등의 사회문화적 기능과 관련된 활동의 현황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sup>6)</sup>

### 1. 개관일수

대학박물관의 일주일 평균 개관일수는 4일 이하가 33%, 5일 이상이 67%이며, 1년의 개관일수는 180일 이하가 44%, 180~270일이 35%, 270일 이상이 21%이다. 대학박물관의 절반 정도가 1년의 절반정도는 개관하고 있는 셈인데,<sup>7)</sup> 이는 대학박물관의 50% 정도가 방학 중에는 개관하지 않는 현상과 관계가 깊은 것 같습니다.<sup>8)</sup>

### 2. 관람인원

대학박물관의 1일 평균 관람인원은 25명 이하가 63%, 50명까지가 16%, 50명 이상은 21%이며 연관람 총인원은 500명이 16%, 2,000명까지가 33%, 5,000명까지가 30%, 5,000명 이상이 23%입니다.

이 가운데 대학생의 30% 이하가 17%, 30~50%가 25%, 50~80%가 30%, 80% 이상이 28% 정도이며 교직원의 관람 비율은 더 보잘 것 없습니다.

중고생, 일반인, 외국인, 교직원 등 다양한 부류의 관람객 중에 대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기는 하지만 극히 일부의 학생들만이 졸업할 때까지 박물관을 관람하는 것으로 짐작됩니다.

대학박물관이지만 90% 정도의 대학이 관람대상자를 대학 구성원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모두에게 공개하고 있는 점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입니다.<sup>9)</sup>

### 3. 교육활동대상

대학박물관에서 시행하는 교육이나 행사는 55%가 대학생(40%) 및 교직원(15%)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대개 중고생(15%) 및 일반인(15%)과 외국인(6%)에게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

6) 대학 박물관의 바람직한 활동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자료를 얻기 위해 각 박물관의 연구 및 교육활동에 관한 설문지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설문지 내용은 전시실 운영, 교육활동, 연구활동, 기타사항 등 4분야로 나누어 모두 22개 문항이었다. 모두 57개 회원교가 자료를 보내 주었는데,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지만 대체로 성실하게 대답해 주었다. 자료를 보내주신 박물관 측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7) 鄭鎮鳳, 앞의 論文, p. 33, 표 2-8 참조.

8) 鄭鎮鳳, 앞의 論文, p. 33, 표 2-9 참조.

9) 鄭鎮鳳, 앞의 論文, p. 33, 표 2-10 참조.

4.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교육활동의 종류는 유적답사(40%)나 전시실 안내(34%)가 가장 많고 다음이 강연회(26%)와 교양강좌(26%)이며 그 외에 특별전(23%), 비디오 상영(17%), 박물관 대학(6%), 세미나 개최(3%) 등이 있습니다. 많은 대학에서 최소한 한가지 이상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에 임하고 있으나 전체 조사대상교의 39%에 해당하는 회원 교에서는 별도의 교육활동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5.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은 문화강좌(18%), 시청각교육·유적답사·강연회(각 9%), 특별전(8%), 박물관대학·전시실홍보(각 5%) 순입니다. 현재 교육활동을 시행하고 있지 않는 대학의 20% 정도만이 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교육계획을 세우고 있고, 나머지 80% 정도는 교육활동계획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6. 지금 시행하고 있는 연구활동은 주로 발굴조사와 보고서 작성에 집중되어 있고, 그 외에 박물관 운영, 자료 수집, 유적 복원, 도록 간행 등이 극소수 있을 뿐이며 전혀 연구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박물관도 21%나 됩니다.

7.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연구활동도 발굴조사와 보고서 작성이 압도적으로 많고, 기획전시회 개최, 금석문 조사,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약간 있고, 공동연구, 박물관학 연구 등이 극소수입니다. 대체로 대학 박물관의 바람직한 활동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8. 대학주변지역의 문화유적에 대한 지표조사 실적은 5건 이하가 39%, 5~10건이 11%, 10~20건이 5%, 20건 이상이 5%이며 40% 정도의 대학은 전혀 실적이 없었습니다. 또 앞으로의 지표조사 계획은 1건 이하가 26%, 2건이 11%, 3~5건이 9%, 6건 이상이 4% 정도이고 50% 정도의 대학은 계획이 없었습니다.

9. 유적파괴문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유적보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파괴 요인은 ① 정부의 무책임한 문화행정, ② 관할 관청의 업무소홀, ③ 도굴, ④ 국민의 무관심 순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또 유적이 파괴되고 있을 시는 대개 적극적으로 대처할 자세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유적파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박물관이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10. 해당 대학 박물관의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는 보통 이하가 70%로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있고, 이는 박물관이 소재한 지역 문화유적지에 대한 관심도와 비례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Ⅲ. 대학박물관의 활동 방향

대부분의 대학이 대학 당국의 박물관 시설 투자 의욕이 극히 소극적이고,<sup>10)</sup> 박물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족한 상태이다.<sup>11)</sup> 이런 조건하에서 박물관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질리 없고, 인력이 충분히 보충될 수 없으므로, 자연히 대학박물관의 사회문화적 기능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음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때문에 많은 대학의 박물관이 3류 부속기관으로 전락하여 대학 안에서 제 위치를 확보하고 있지 못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런 현상이 어제·오늘에 와서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서서히 진행되어 왔던 것이지만 우리 자신들이 이러한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성이 갈수록 깊어지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한 두가지만 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박물관장의 일반 보직화 현상입니다.<sup>12)</sup>

극단적으로 도서관 보다 더 관련 전문가가 맡아야 할 박물관장직을 박물관의 중요성이나 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극단적으로 의욕이 부족한 교수들이 맡는 경우가 증가하다 보니 실제 창의적인 박물관 운영이나 박물관 활동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박물관에 대한 인식 부족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학 박물관에 대한 인식은 ① 유물을 보관 전시하는 곳, ② 발굴하는 곳, ③ 소수의 전공 교수 및 직원이나 전공학과와만 관계있는 곳, ④ 발굴하여 메스컴을 타면 학교 PR 잘해주는 곳 등 정도입니다.

따라서 외부용역이나 받아 발굴된 유물만 가져다 놓으면 博物館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박물관에 대한 별도의 투자는 필요없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

10) 鄭鎮鳳, 앞의 論文, p. 30의 표 1-11에 의하면 대학 당국의 시설투자의욕이 소극적이거나 무관심한 대학이 62%, 보통인 대학이 3%이고, 적극적인 대학은 6%에 불과하다.

11) 鄭鎮鳳, 위의 論文, p. 34의 표 3-2에 의하면 86%의 대학 박물관이 총 예산 수준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12) 1995. 10. 13자 조선일보에 『대학박물관장 비전공자 많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지표조사나 발굴조사와 같은 전문적인 작업을 지휘하고 그 결과에 대해 실질적인 책임을 져야 할 대학 박물관장이 비전공자란 사실은 많은 우려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하였다. 이 신문기사는 작년도 국회 국정감사 자료를 근거로 한 것 같은데, 이는 실질적인 발굴 책임자를 추정 파악한 자료에 근거한 것이라고 한다.

위의 기사 내용은 유적 유물의 지표조사나 발굴조사의 경우는 그 타당성이 인정되지만, 대학 박물관의 성격에 따라 관장의 전공영역이 일률적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박물관장의 전공영역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관장이 얼마만큼의 의욕을 가지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박물관을 이끌어갈려고 하는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대학에서의 박물관에 대한 인식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은 대학에서 박물관과 관련된 전공 공부를 하고 있는 전문연구자나 실제 박물관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박물관장이나 관계 직원들의 잘못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 박물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고, 설사 그것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니다.

다시 말해 용역 발굴이나 있으면 하고, 유물정리하여 보고서 내고, 그중 좋은 유물 골라 전시하면 내 할일 다 했다고 생각하는 안이에 빠져 있는 연구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 무엇을 어떻게 전시하고, 보여줄 것인가를 얼마나 고민했는지(즉 구태의연한 전시의 개선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 학교의 교수나 교직원, 학생 즉 학교구성원들을 박물관으로 불러들이기 위해 얼마나 계획하고 고민했는지, 특색있는 박물관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가슴 깊이 반성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대학박물관이 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우리들이 노력해야 할 두가지 방향에 대해서만 언급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구성원인 학생이나 교직원들을 되도록 많이 박물관으로 불러들여야 할 것이다. 이는 박물관이 소수의 전공학자나 몇몇의 관련학과를 위한 시설이 아니고 전체 학생을 위한 시설임을 인식시켜야 합니다. 그 방법으로는 먼저 전시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현재의 전시는 설명이 어렵고, 사진이나 그림 제시가 부족하며, 체계적이지 못한 무성의한 전시로 일관되고 있습니다. 즉, 유물 나열식 전시, 전문가 및 전공자 위주의 전시, 명확한 목적의식이 없는 전시는 조속히 탈피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단순히 전시실 관람 뿐 아니고, 보고, 듣고, 느끼기 위해 박물관에 출입하도록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문화강좌 및 강연회, 슬라이드 및 비디오상영회, 특별전, 유적답사 등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이며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기존 계획을 더 좋게 개편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간단한 음악연주회, 한문강좌, 전통문화강좌 및 실연, 자기학교 발굴현장 견학회 등도 필요할 때 고려해 볼 만한 것일 것입니다.

영남대학을 비롯한 몇 개 대학박물관에서 전통문화 강좌를 개설하여 크게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sup>13)</sup> 이것은 박물관이 사회교육기관으로써 지역사회에 크게 기여하는 방법중의 하나이며 한편 대학박물관의 위상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활동이 더욱 의미있는 활동이 되려고 하면 이와 함께 학교구성원에 대한 교육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시를 잘하고, 좋은 박물관 교육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박물관 구성원들이 博物館學의 여러 전문분야에 정통해야 합니다. 대학박물관은 현실적으로 전시·보존 등 특수전문분야의

13) 성태규, 「영남대학교 박물관의 박물관대학 강좌」, 『고문화』 45, 1994.

江原大學校博物館 『博物館誌』 창간호, 1994.

전문직원을 별도로 둘 형편이 되지 못합니다. 다행히 근래에 와서 유물보존처리 분야에는 전문직원을 두어야 하는 인식들이 꽤 높아져 많이 달라지고 있지만, 아직 박물관의 전시분야나 교육분야에까지 전문직원을 들 수 있는 박물관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현재의 소수 연구원들이 이 분야도 맡아 할 수 밖에 없고, 그렇다면 이 방면에 대해서도 공부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합니까? 우리 모두 가슴 위에 손을 얹고 깊이 생각해 봅시다.

또 박물관이 학교안에서 확실한 부속기관으로서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현재와 같이 학교에 오는 손님의 견학코스 중의 하나이거나 발굴활동 등을 통해 학교를 PR해 주는 기관 정도가 아닌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부속기관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방법 중의 하나가 연세대학교 박물관 등 몇몇 박물관의 경우처럼 학교 校史 박물관으로서의 기능을 겸하거나 學校史 관련 자료의 보관, 연구기관을 겸하는 것일 것입니다.

다음 하나는 관장이나 연구원을 비롯한 대학박물관 구성원들의 地域社會文化遺蹟에 대한 관심과 애착을 가져야 하는 점입니다.

우리 대학박물관의 장점은 박물관의 수가 많고, 각 지방에 고루 분산되어 있는데다 協會를 통하면 어떤 목표에 대한 일관성 있고, 조직적인 활동이 가능하고, 필요한 훈련된 人力의 동원이 용이하다는 점 등입니다. 위와 같은 장점을 가진 박물관의 바람직한 활동 중의 하나는 발굴 일변도의 연구활동이 아니고 유적·유물의 가장 기초조사인 지표조사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결과는 지역사회의 역사와 문화와 연구에는 물론 효율적인 유적관리 및 보존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활동은 대학 박물관만이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전남지방의 경우<sup>14)</sup>나, 강원지방의 경우<sup>15)</sup>처럼 지방관청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그 지역 대학 박물관끼리 지역을 분할 조사하면 매우 효율적으로 지표조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결과가 축적되면 해당 대학박물관 자체의 연구 및 활동 방향도 뚜렷하게 설정할 수 있을 것이며 지역사회 속에서의 대학박물관의 입지도 보다 확고해질 것입니다.

지표조사 못지 않게 우리 대학박물관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점은 文化遺蹟의 保存과 破壞를 監視하는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文化遺蹟은 설사 文化財保護法이 제대로 되어 있고, 사명감에

---

14) 전남지방의 문화유적지표조사는 전남도 자체계획에 의해 1981년부터 시작하여 1년에 1~2개 시군씩 조사하고 있다. 현재 27개 시군중 20개 시군의 조사를 완료했으나 단계라고 하며 조사비용은 道와 市郡이 반반씩 부담하고 있다. 조사에는 목포대학교 박물관이 주축이 되고 전남대 박물관, 조선대 박물관, 순천대 박물관이 참여하고 있다.

15) 강원도 지방의 문화유적지표조사도 전남도와 마찬가지로 1993년도부터 시작하여 현재 8개 시군의 조사가 완료되었거나 진행중이다. 이 조사에는 강원도의 4개 대학 박물관과 지역 대학 교수들로 구성된 강원향도문화연구회가 참여하고 있다.

불타는 공무원들이 있다 해도 官의 힘만으로는 감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만 비로소 가능한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수가 많고, 전국 각지내 분산되어 있는 대학박물관이 앞장서면 어느 정도는 효과를 거둘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인접지역의 대학끼리 연대해서 이 활동을 공동으로 전개하면 그 효율은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지역사회의 고대 및 전통문화 유물을 研究하고, 소장, 전시하며 교육하는 대학박물관이 그 지역의 문화유적이 파괴되고 소멸되는 것을 수수방관할 때, 그 박물관의 존재 가치는 없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대학박물관이 학교 구성원들로부터 새롭게 인식될 때 비로소 학교지원도 나아질 것이고, 부속기관으로서의 박물관의 제 위치도 확보 가능할 것이며 나아가 지역 사회로부터도 필요하고 유익한 기관으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 IV. 맺 음 말

지금까지 대학 박물관의 사회문화적 기능에 대해 연구 및 교육활동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선배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어 제기된 대학박물관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활동방향들이 앞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실제 박물관 운영에 반영되어 대학박물관의 운영 방향이 크게 개선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정부 내지 대학 당국의 지원 및 인식 부족에 기인한 점도 없지 않지만 대학박물관의 자체적인 노력이나 의지 부족에 연유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이미 선배들이 오래 전에 제기한 문제들의 일부일 뿐 전혀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같은 이야기가 오늘에 와서 되풀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은 대학 박물관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일관성있게 박물관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러한 현상이 앞으로도 얼마든지 계속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가 몰라서 못하느냐? 시설, 예산, 사람, 기타 여건 타령을 할 것이고, 때문에 못한다고 변명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대학들이 처해 있는 여건하에서는 이들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기는 영원히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선을 다하자는 것이고,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려는 뜻입니다. 그러면 방법은 어떤 형태로든지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학박물관들은 서로 좋은 의견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교환하고, 그 구체적인 경험들을 기관지인 『古文化』지에 소개하여 확산시켜 나갔으면 합니다. 아울러 앞으로 『古文化』에는 전문논문 외에 박물관의 운영이나 활동에 관한 의견들이 많이 게재되어 대학박물관협회 기관지로서의 면목도 살렸으면 한다.

아름든 대학박물관 활동의 대중화와 대학구성원과 함께 호흡하는 살아있는 박물관 활동이 절실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끝낼까 합니다.

## 설문지 조사 통계

### 《전시실 운영》

#### 1. 박물관의 1주일 평균개관일자와 연 총개관일수는?

평균 개관일자	2일 이하	3~4일	5일 이상	계
응답 수	8	11	38	57
비율 (%)	14	19	67	100

연 총개관일자	90일 이하	90~180일	180~270일	270일 이상	계
응답 수	10	15	20	12	57
비율 (%)	17	27	35	21	100

#### 2. 박물관의 1일 평균관람인원과 연관람 총인원은?

1일 평균관람인원	10명 이하	10~25명	25~50명	50명 이상	계
응답 수	16	20	9	12	57
비율 (%)	28	35	16	21	100

연관람 총인원	500명 이하	500~2000명	2000명~5000명	5000명 이상	계
응답 수	8	19	17	13	57
비율 (%)	14	33	30	23	100

#### 3. 박물관의 관람객의 구성비율은?

중 고 생	10% 이하	10~30%	30~50%	50% 이상	계
응답 수	25	14	11	6	57
비율 (%)	44	25	19	12	100

대 학 생	30% 이하	30~50%	50~80%	80% 이상	계
응답 수	10	14	17	16	57
비율 (%)	17	25	30	28	100

일 반 인	5% 이하	5~10%	10~30%	60% 이하	계
응답 수	24	11	13	9	57
비율 (%)	42	19	23	16	100

교 직 원	5% 이하	5~10%	10~30%	50% 이하	계
응답 수	39	8	8	2	57
비율 (%)	68	14	14	4	100

외 국 인	3% 이하	3~5%	5~10%	10% 이상	계
응 답 수	32	7	8	10	57
비 율 (%)	56	12	14	18	100

4. 박물관 전시실의 전시내용 구성비율은?

고 고 유 물	25% 이하	25~50%	50~70%	70% 이상	계
응 답 수	20	20	10	7	57
비 율 (%)	35	35	18	12	100

민 속 유 물	25% 이하	25~50%	50~70%	70% 이상	계
응 답 수	26	15	11	5	57
비 율 (%)	46	26	19	9	100

미 술 사 유 물	25% 이하	25~50%	50~70%	70% 이상	계
응 답 수	38	16	0	3	57
비 율 (%)	67	28	0	5	100

기 타 유 물	25% 이하	25~50%	50~70%	70% 이상	계
응 답 수	40	6	7	4	57
비 율 (%)	70	11	12	7	100

5. 박물관에서는 지역사회와 관련된 전시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가?

총응답수 : 57

	있 다.	없 다.	계 획 중 이 다.	기 회 가 되 면 하 고 자 한 다.	계
응 답 수	9	13	11	24	57
비 율 (%)	16	23	19	42	100

6. 전시실의 면적은?

	100평 이하	100~250평	250~500평	500평 이상	계
응 답 수	13	19	10	15	57
비 율 (%)	23	33	18	26	100

《교육활동》

7. 박물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활동의 범위는?

총응답수 : 57

	중 고 생	대 학 생	일 반 인	교 직 원	외 국 인	희 망 자	계
응 답 수	16	43	19	16	7	8	109/57
비 율 (%)	15	40	17	15	6	7	100

\* 국교생 : 2, 유치원생 : 1

8. 박물관이 행하고 있는 교육활동의 방법은?

총응답수 : 57

	전시실 관람과 설 명	시 청 각	유적답사	강 연 회	기 타	계
응답수	57	14	17	16	4	108/57
비율(%)	52	13	16	15	4	100

9. 귀 박물관이 행하고 있는 교육활동의 성격과 일년당 개최 횟수는?(복수선택)

- ① 강 연 회 9/57
- ② 답 사 14/57
- ③ 비디오상영 6/57
- ④ 특 별 전 8/57
- ⑤ 전시실설명 12/57
- ⑥ 교양강좌 9/57
- ⑦ 박물관대학 2/57
- ⑧ 세 미 나 1/57

해당없음	1	2	3	4	5	6	7	8
22/57	9/35	14/35	6/35	8/35	12/35	9/35	2/35	1/35
39%	26%	40%	17%	23%	34%	26%	6%	3%

\* 전체조사대상교의 39%에 해당하는 회원교에서 교육활동에 대한 프로그램을 가지지 않고 있음. 그외의 대학에서는 최소한 한가지 이상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회교육에 임하고 있음.

10.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교육활동은?(단수선택)

- ① 박물관대학 3/57
- ② 문화강좌 10/57
- ③ 전시실홍보 3/57
- ④ 시청각교재 5/57
- ⑤ 유적답사 5/57
- ⑥ 강 연 회 6/57
- ⑦ 특 별 전 4/57
- ⑧ 계획없음 21/57

1	2	3	4	5	6	7	8
3/57	10/57	3/57	5/57	5/57	5/57	4/57	21/57
5%	18%	5%	9%	9%	9%	8%	37%

\* 9번 문항에서 해당없다고 응답한 회원교의 80%가 다시 10번 문항에서 계획없다고 응답하고 있음. 그리고 약 20% 정도가 교육의 필요성을 가지고 사회교육을 시도하고자 함.

11.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1년 예산은 어느 정도인가?

《연구활동》

12. 지금 시행하고 있는 연구활동은 무엇입니까?(복수선택)

- ① 발굴조사            32/57
- ② 보고서              20/57
- ③ 자료수집            2/57
- ④ 유적복원            2/57
- ⑤ 박물관운영        5/57
- ⑥ 도록간행            2/57
- ⑦ 해당없음            12/57

해당없음	1	2	3	4	5	6
12/57	32/45	20/45	2/45	2/57	5/57	2/57
21%	71%	44%	4%	4%	11%	4%

13.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연구활동은 무엇입니까?(복수선택)

- ① 발굴조사            30/57
- ② 보고서              15/57
- ③ 공동연구            2/57
- ④ 박물관학            2/57
- ⑤ 금석문조사        4/57
- ⑥ 교육프로            4/57
- ⑦ 기획전              5/57

	1	2	3	4	5	6	7
11/57	30/46	15/46	2/46	2/46	4/46	4/46	5/46
19%	65%	33%	4%	4%	9%	9%	11%

14. 연구활동에 소요되는 1년 예산은 어느 정도인가?

15. 박물관이 위치하고 있는 주변지역의 문화유적에 대한 지표조사실적과 계획은?

지표조사실적	5건 이하	5~10건	10~20건	20건 이상	계
응답수	22	6	3	3	34(57)
비율 (%)	39	11	5	5	60
지표조사계획	1건 이하	2건	3~5건	6건 이상	계
응답수	15	6	5	2	28(57)
비율 (%)	26	11	9	4	50

《기타 사항》

16. 유적파괴문제

- 현재 자행되고 있는 유적파괴문제에 대한 귀박물관 입장은?

총응답수 : 57

	1번 문항	2번 문항	3번 문항	4번 문항	계
응답수	36	21	0	0	57
비율 (%)	63	37	0	0	100

- ① 심각한 상태이며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유적보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② 대학박물관의 힘으로는 곤란하며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여론화 시켜야 한다.
- ③ 심각한 상태이기는 하나 조금 더 추이를 두고 보아야 한다.
- ④ 대학박물관에서 관여하기 보다는 해당관서에서 처리해야 할 문제이다.

- 유적파괴의 요인에 대한 박물관의 견해는(우선순위순으로)?

	1번 문항	2번 문항	3번 문항	4번 문항	계
1 순위	26	9	12	10	57
2 순위	15	26	3	13	57
3 순위	10	12	25	10	57
4 순위	6	10	17	24	57

- ① 정부의 무책임한 문화행정
- ② 관할관청의 업무소홀
- ③ 불법적인 도굴행위
- ④ 국민들의 무관심때문

- 박물관과 인접한 지역의 유적이 파괴되고 있을 시 박물관의 대처방안은?

총응답수 : 57

	1번 문항	2번 문항	3번 문항	4번 문항	계
응답수	39	6	6	6	57
비율 (%)	68	10.6	10.6	10.6	100

- ① 해당관청에 통보하고 합리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 ② 해당관청에 통보하여 조치를 일임한다.
- ③ 현장조사후 파괴유적의 위치를 도면에 남긴다.
- ④ 현장조사후 유물을 수습한다.

17. 지역사회와 관련된 문제

- 박물관이 소재한 지역의 일반인들의 문화유적에 대한 관심도는?

	대단히 높다.	비교적 높은 편이다.	보통이다.	낮은 편이다.	계
응답 수	0	7	37	12	57
비율 (%)	0	12	65	21	98

\* 모름 : 1

- 지역사회에 있어서 문화의식 고양을 위한 방법에 대한 박물관의 견해는?

총응답수 : 57

	1번 문항	2번 문항	3번 문항	4번 문항	계
응답 수	25	11	18	3	57
비율 (%)	44	19	32	5	100

- ① 방송매체의 적극적 활용
- ② 특별강연회
- ③ 현지답사를 통한 대담
- ④ 기타 -각 기관에 대한 단체관람 유도를 실시중

- 박물관의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

	대단히 높다.	비교적 높은 편이다.	보통이다.	낮은 편이다.	계
응답 수	0	16	25	15	57
비율 (%)	0	28	44	26	98

\* 전혀 없다 : 1

\* 11번문항, 14번문항은 조사결과 항목의 구별없이 마구잡이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자료로서의 가치가 현저히 적으므로 제외하였음.